

# 달성 빈곤시대 허물 벗고 빛나는 달성시대 활짝 열자 **관련기사 2면**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켜야 할 군민과의 약속은 새로운 백년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이다.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비상하는 △군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명품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맞춤형 교육도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젊은 도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 왜냐하면 부강 지방정부를 세워야만 군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 오늘의 지면

군위 25만 시대 연다	4면
경주 설맞이 행사 분주	5면
봉화 수마 참혹 복구 총력	8면
예천 경북 중심도시	9면
청송 설명절 종합대책	10면
설선물은 영양고추 최고	11면
김하수, 청도 행복헌장 제정	12면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2024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울진군 후포항 일원

2024. 2. 22(목) ~ 25(일)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특수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대한민국의 **김** 음식



문의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 | TEL. (054)789-5485~6



# 최재훈이 꿈꾸는 새로운 100년 약속...군민 행복

달성 빛나는 변화의 초석 다진 반짝이는 활약, 2024년에도 쭉 백년 서막여는 풍요의 땅 건설 부강 지방정부 부흥의 땅 꿈꿔 빛 달성 풍요시대 군민이 주인

최재훈 달성군수가 신반끈을 조여매고 다시 댕다.

달성의 새로운 백년 서막을 여는 풍요의 땅 건설이다.

지금 달성은 깊은 늪에 빠진 경기약화시장에서 군민이 빛나는 달성으로 한 단계 비상하기 위한 열렬한 작업이 한창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에 달성은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2024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발로 뛰는 달성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미 달성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뼈대는 세워진 셈이다.

지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알맹이를 채워나간다는 각오다.

그래야만 달성이 더 큰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

최 군수가 지켜야 할 군민과의 약속은 새로운 백년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이다.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비상하는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

왜냐하면 부강 지방정부를 세워야만 군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 ■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은 지난해 빛나는 변화의 초석을 놓았다.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등을 유치, 지역 산업 동력을 구축했다.

화원 대구교도소가 하변면으로 이전, 지역 풍경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달성교육재단의 출범으로 체계적인 교육사업 발판을 마련했다.

유가음 행복한 병원 개원 등으로 지역 의료복지에 새바람이 불었다.

때문에 달성은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빛나는 군민’을 위한 초심을 그대로 이어갈 달성의 희망 2024이다.

지난해 장학, 진로진학, 도서관 등 교육사업을 아우르는 달성교육재단이 출범했다.

군에서 진행하던 여러 교육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컨트롤타워가 탄생한 셈이다.

어린이집 영아교사 전담배치 등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도한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이 이 같은 변화의 고삐를 죄기 위해 새해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으로 지역 발전을 꾀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최대 100억 원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2월 초 구·군별 사업모델을 반영한 특구 지정 신청서를 낸다.

달성군은 그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교육 혁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했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특구 지정의 열쇠로 작용한다.

군은 △대구국가산단단지·대구테크노폴리스와 디지스트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계 사업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등 관내 다문화 가족 대상 특화 사업 △늘봄학교 활성화 등 돌봄서비스 확대에 행정력을 모은다.

하변면의 달서중·고는 학령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다사 세천지역에 2027년 개교한다.

기존 달서중·고의 후적지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는 화원초등학교와 달성중학교가 선정됐다.

학생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주민들은 그간 부족했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테크노3초등학교 조기 개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화원읍 분리 창의놀이터 건립 등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 ■ 대구 첫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이 대구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해는 총 4709명의 시민이 문화활동에 참여, 911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전체 군민의 약 60%에 달하는 15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군은 올해도 주민 공동체와 지역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호혜로운’ 권역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간다.

사문진을 주제로 기획하는 시민참여형 야외 오페라, 달성문화기획학교 1기 수료생 중심의 문화기획 심화과정 등이 그 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구현대미술제다.

지난해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 지

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콘서트에 출연하는 지역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미술제에 지역 청년작가들과 주민이 함께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식이다.

지역 산단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 ‘문화한 끼’도 눈여겨 볼 만하다.

문화도시 비전인 호혜로움을 실천하는 전입세대와 신생아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달성 보따리’는 지역민은 물론 달성군을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어루만지는 사업도 이어진다.

지난해 말 대구교도소가 하변면으로 이전, 후적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플렉스 유치에 공을 들인다.

교도소가 떠난 자리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후적지 내 주민 휴게공간을 신속하게 만든다.

관광객 유입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지역민의 이목이 쏠린 호재 중 하나가 비슬산 내 경찰수련원 건립이다.

비슬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접근성 덕에 경찰수련원 위치로 낙점됐다.

군은 경찰 관련부서와 발빠르게 협력한다.

호텔아젤리아, 현풍향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등 인근 관광지 방문이 함께 늘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 풍경 역시 새해를 맞아 더욱더 달라진다.

현풍읍 성하리 일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목조전망대를 만드는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달성 관문도로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원 관광지 내 가족테마파크, 세천 금호강변 가족캠핑장 등 온 가족이 함께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 ■ 미래 먹거리 사업 박차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모빌리티 모터 소제·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주요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2032년 하변면에 새롭게 터를 잡는다.

모두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군은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각종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설명서 구축 등 가능한 지원원 아끼지 않는다.

지역 내 기업에 세제, 금융, 정주여건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내놓았다.

대구시가 수립하는 계획에 달성군 대구국가산단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가 포함된다.

군은 대구시에 두 권역 내 주거, 교육, 문화체

육, 공원녹지 인프라 확충과 기반시설(SOC) 지원 계획, 기타 재정 지원계획 등을 마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군이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면 지역의 주거, 녹지 등 인프라와 조세혜택 등이 합쳐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4800여 개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예산 53억 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서다.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장 이전 등에도 앞장선다.

### ■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도시

달성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유가음 ‘행복한 병원’ 24시간 응급실 개소,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뽕뽕이’ 등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방문, 주민 호응이 높다.

주민 건강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사업에 힘쓴다.

저소득 가정에 신선한 농산물 등 식품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농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된 탓이다.

취약계층에 안전한 먹거리를 지급, 달성군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대구시 구·군 중 1회 출연금으로 최고 금액인 10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농협은행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자금이 조기 소진돼 3억 원을 추가 출연, 총 13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도 꼼꼼히 살핀다.

일단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농공읍 등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글로벌 센터 등 맞춤형 지원공간을 건립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보훈가족 예우 역시 잊지 않는다.

호국공적비 건립,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 명예수당 지원 등이 그 예다.

장애인 이동나드리콜과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을 확대 운영,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조여은 기자

with us Suseong

차별화된 유일도시 배려하는 행복도시 사람중심 미래도시

행복수성!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GR코드를 스캔하시면 수성구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군민소통 열린의회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밝은 달성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역사 바뀐 군위... 소멸시대 접고 인구 25만 시대 연다

### 김진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시대 건설 인구 25만명시대 대비 희망주택 조성 첫걸음

군위의 지도가 새로 바뀌었다. 군위군이 127년 만에 경북을 떠나 대구에 동지를 틀면서 새로운 백년 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 기존 행정구역 편입과 달리,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라는 정치적 합의에서 시작된 편입이다. 지금 군위는 세계적인 공항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에서 신공항 배후도시로 발전의 전기를 맞은 것이다. 청정 농촌의 강점을 살린 도시산업화로 대구 굴기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는 K-농업의 첨단기계와 기술을 해외에 수출, 진출하는 전략거점지역으로 탈바꿈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부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세계적 규모의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팔공산 주변 명소화와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 군위의 백년초석을 다진다”고 강조했다.

**■인구 25만 시대 연다**  
김진열 군위군수가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시대를 연다.

그는 △공감하는 열린행정 △감동주는 나눔 복지 △도약하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 김 군가 내놓은 6대 주요시책은 △행복지수 1위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기업하기 좋은 공항도시 △농업·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아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노인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건설이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대구시 공공기관과의 첫 협력사업에 나선다. 인구 25만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인 군위형 희망주택사업이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부응, 인구 25만 시대를 대비한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6일 대구도시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설계공모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간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층 유입을 확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해부터 준비한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은 군위에서 경제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표적이다. 군위를 일대에 15평형 12세대, 11평형 8세대 등 총 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전액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된다.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은 단순히 청년 대상의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를 넘었다.

고령화 시대 지역 내 세대 균형을 이루는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TK신공항 건설과 첨단산업벨트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유입이 기대되는 인구를 적절히 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는 데에 의의가 크다. 이 사업은 군위군이 행정적 지원을 맡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설계·시공·감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1988년 토지주택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을 비롯, 대구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특허, 청아람으로 대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에 최적의 동반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군위군에 계획 중인 공무원 연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군위군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의 첫 협력사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향후 신공항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 군위군이 맞이할 거대한 물결에 함께 대비할 든든한 우군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공감 열린행정**  
김 군수는 지난달 21일 군위를 하곡리를 시작으로 군위군 180개 마을 방문에 나섰다.

관내 마을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신년인사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마을별 순회방문으로 2023년 마을방문 시 마을별로 접수받은 각종 마을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등 670여건의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및 결과를 직접 전달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선할 점, 추

이 때문에 안내문자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이다. 군위읍의 한 주민은 “나이가 70이 넘어 주변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군청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문자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 걸면 바로 알려주고 하니 편하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시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새달 중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문자알림서비스 5천명 돌파**  
군위군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 1달 만에 신청자 5000명을 돌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내 손안에 군위’ 문자알림서비스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과 주

요 행사 등을 매주 화요일 문자로 전송해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은 이후 매주 천 명 넘게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행 1달 만에 5000명을 넘겼다. 알림문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RCS메시지서비스를 활용, 발신번호에 일반전화번호 대신 ‘내 손안에 군위’라는 문자형태로 전송한다.

**■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군위군은 민관 합동으로 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일 군위전통시장상인회와 군위군 지역활력과, 군위읍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전통시장 내 실맞이 환경정비 대청소를 했다. 이인식 군위전통시장상인회장은 “실맞이 대청소로 군위전통시장이 더욱 쾌적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국유사면 직원과 산불감시원도 삼국유사

면 화북리에 위치한 솔머리에서 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삼국유사면은 설 명절에 앞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를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를 추진, 오랜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김은섭 삼국유사면장은 “추운 날씨에 지역을 위해 대청소에 참여해준 직원과 산불감시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청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위군은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계몽운동도 결심했다. 대구시 북구와 군위군을 오가는 급행9번 버스 승강장(팔거역, 칠곡경대병원역 등)을 중심으로 군위전통시장 이용 홍보와 함께 ‘2024 설맞이 감사대잔치’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024 설맞이 감사대잔치’는 지난 5일 의흥시장에 이어 8일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렸다.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군위시장 5일 대목 장날(2월 3일, 2월 8일) 급행9번 중점(군위군청 제2주차장)에서 군위전통시장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군위군은 고물가와 대형마트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와 협력,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

**■설 연휴 행사 풍성**  
(제)군위문화관광재단은 설 연휴인 9~12일까지 4일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龍)’ 행사를 연다. 선물과 할인 받는 ‘받아용(龍)’행사가 9~12일까지 진행된다. 용띠 방문객 100명에게는 색동 동전 지갑을 선착순으로 선물한다. 용띠 방문객과 한복을 착용한 본인 및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 할인 및 묶음(패키지) 우대가 적용된다. 즐거용(龍)행사는 10~12일까지 테마파크 내 눈썰매장 특별무대에서 버블쇼와 범블비 공연이 선보인다. 북유럽 눈마를 재현한 눈광장에서는 눈썰매 체험도 가능하다. 테마파크 내 이야기학교에서 진행되는 ‘만들어용(龍) 일감은 포일카드와 연 만들기, 국공투호 체험, 율놀이 체험 등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즐길 수 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연휴 기간 정상 운영, 행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군위문화관광재단 김진열 이사장은 “설을 맞아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 구미, 신산업의 중심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으로 새희망 구미시대를 열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기지**  
특화 도시로 도약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유무인복합체계 K-방산**  
전초기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선정

**AI 서비스 로봇**  
글로벌 제조 생태계 구축



# 주낙영,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경제살리기 동참



경주시가 설맞이 행사준비로 분주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거리 청소도 한창이다.

### ■주낙영, 전통시장장보기

주낙영 경주시장이 7일 중앙시장을 찾아 설 명절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행사는 시 직원을 포함해 농협은행, 대구은행 직원 등 40여명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해 지역상권 살기기에 동참했다.  
주시장은 과일, 채소, 강정 등을 은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사용하며 물품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이웃의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은 인기 로컬 프로그램인 '심심 고향별곡'의 진행자인 한기웅씨가 깜짝 출연, 중앙시장 홍보, 상인과 방문객 인터뷰, 특별 행사를 했다.  
전통시장매력과 명절장보기 킷트를 전했다.  
촬영한 유튜브 영상은 설명전경주와 협경주 채널에 업로드 된다.  
앞서 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분청 부서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은 물론 중심상가, 봉황중심가 등의 도심상가와 황성상가, 동천시장 등 골목상가에서도 진행했다.  
시는 경주페이를 2월 한달 동안 개시백 혜택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류형(6% 할인) 은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카드형(10% 할인) 은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연중 확대했다.  
수산물물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8일까지, 농축산물물은 안강시장에서 8일까지 당일 국산 농축산물 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주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원동력이자 뿌리다. 그물과 장거리처럼 어려운 상인들이 다시 힘을 내

고 이곳에 생기기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 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설연휴 문어는 병원·약국

설연휴 동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주지역 20여곳의 의료기관과 40여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경주보건소는 설 연휴인 9-12일까지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 문을 여는 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동국대 경주병원,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을 포함해 병의원 24곳 및 한의원 2곳과 휴일지킴이약국 43곳이다.  
인근 편의점 등 280여곳에서도 해열제와 진통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할 수 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경주시청(www.gyeongju.go.kr) 및 경주시보건소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행정과장은 "연휴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등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설연휴를 전후해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납부 등 세무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전국 동시에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재증명 등 세금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기존 부과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도 할 수 없다.  
기존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통한 납부는 7일까지 가능하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는 2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가상계좌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중단 전 세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7일 밤 11시 30분까지는 가상계좌, CD/ATM,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홈페이지)이나 금융기관 창구 등에서 부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이 2월 8-16일까지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19일까지 기한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설맞이 자차차도 및 도로정비  
설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도로정비를 했다.  
도로정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6일간 진행했다.  
토사퇴적 및 오물, 우수 등에 취약한 자차차도 청소와 배수로 점검을 시작으로 도로 소파보수(포트홀), 덧씌우기, 위험예상지구 표지판 보수, 상습설해 구간 제설차 확인 등을 중점 추진했다.  
인도면 및 도보블록 등 정비해 편안한 보행여건을 마련했다.  
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해 안전한 차량운행에 대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손장학 도로과장은 "설연휴기간 동안에도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연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립정사공무원 경주하늘마루도 진입도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진입도로 쓰레기 수거와 대대적인 청소를 시행했다.  
경주하늘마루 봉안당은 수용능력 2만기 중 5814기를 안차하고 있다.  
설 명절 기간 많은 추방객들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연휴기간 동안 봉안당은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이용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청렴 기고문■

## 하늘의 그물, 천망(天網)의 가르침

세상엔 다양한 그물이 있다.  
물고기를 잡는 어망부터 해충을 막는 방충망까지, 우리네 일상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그물(網)이다.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물과 공기는 통하되 그물코 보다 큰 물체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그물의 규칙성을 법(法)에 적용해, 법적인 감시와 제재를 뜻하는 '법망(法網)'이라는 그물도 세상에 존재한다.  
"법망이 더 촘촘해졌다", "법망을 빠져 나간 범죄자"라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인 용례다.



경주시장 주낙영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물이든 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상상해 보자. 방충망에 자그마한 구멍만 나도 모기떼에 밤잠을 설칠 것이며, 법망에 구멍이 났다면 사회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지 않겠는가!  
망 가운데 '천망(天網)'이라는 그물도 있다. 하늘이 인간의 악행을 언젠가 걸러낸다는 그물이 천망이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 엉성한 것 같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악화를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고 했다.  
하늘엔 인간 세상사를 걸러주는 망이 있고, 그물코가 넓고 커 성긴 것 같지만 놓치는 법이 없어 악행은 반드시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표현이다.  
중종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되기도 하여 '천망(天網)'이 허술한 건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하지만, 무엇이 됐건 천망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  
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도 30여년 만에 진범이 검거됐고, 미궁에 빠져 있던 1991년 대구 초등학생 실종사건 또한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곧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처럼 '천망(天網)'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세상엔 비밀이 없고, 악행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  
비록 하늘의 섬리인 천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만든 법망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항상 정도(正道)를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공직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행위다. 공직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유리어항 속의 관상어처럼 항상 노출되어 있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렴이란 금품·향응 수수·부정청탁 근절은 기본이고, 소극적 행정 탈피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단순히 청렴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의 청렴함과 적극성이 곧 유능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아도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되새기며, 청렴 도시 '경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고령군,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추진

고령군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104명이 확대, 총 144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군이 직접 수행하는 공익형 1276명과 대한노

인회에서 수행하는 공익형 124명, 사회서비스형 40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작년 대비 26명을 더 확보, 현재 일부는 읍면에 배치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란도란 사회적 소통 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란도란 사회적 소통 지원단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IMC 그룹, 대구에 1300억 원 대규모 투자!

## 대구택 이어 세 번째 투자 누적 투자액 총 2975억 원

대구는 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IMC 그룹(사장 일란 계리)과 달성군 가창면 내 IMC엔드밀(유)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IMC 그룹은 2008년 대구택(1000억 원), 2018년 IMC엔드밀 1차 투자(675억 원)에 이어 세 번째 투자다.

버크셔 해서웨이(회장 워렌버핏)의 대구 누적 투자액은 2975억 원을 기록하게 됐다.

IMC 그룹은 세계적인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워렌버핏이 소유한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속가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절삭공구를 생산하고 있다.

IMC엔드밀(유)은 이번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신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특수가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 분말을 제조한다.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텅스텐 분말 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전략 물자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비축 자원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 분말제품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50년을 이끌 5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텔레칩스, 인피니테크놀로지스 등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분야 국내의 대표 설계기업을 유치했다.

D-FAB 센서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에 특화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IMC엔드밀(유) 투자로 지역에 반도체 핵

심소재 제조기반을 확보해 대구의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택과 IMC엔드밀은 워렌버핏과 IMC 그룹의 과감한 투자로 대구와 함께 성장해 온 대구의 대표적인 외투기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자로 대구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소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가족 율놀이 한마당’ 개최 대구수성가족센터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 60여 명이 참여, ‘2024 갑진 설날, 수성가족 율놀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팀별 율놀이, 퀴즈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해 가족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이후 수성가족센터에서 열린 첫 율놀이 행사라 의미가 더 컸다. 정순화 센터장은 “수성가족과 명절과 설날 문화를 함께 경험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다.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수성가족센터)

## 윤석준, 설 명절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 만들어요~

### ‘설맞이 종합대책’ 마련 7대분야 22개 세부추진

동구청장은 오는 14일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한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과 귀성객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는 △민생경제 안정 △응급의료체계 구

축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생활불편 해소 △교통특별대책 △공직가장 확립 등 7대분야 22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민생경제 안정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불공정 상향위 집중 점검을 하며, 성수품·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 상거래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지도, 설맞이 교통 관련 식품접객업 소지도 등을 한다.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재난재해 예방은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응급사고 및 재

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관내 유원시설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으로 설 연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위문활동을 전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조미경 기자

## 의성소방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의성소방서는 6일 안계 전통시장에서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민경제 및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장보기 행사를 했다. 장보기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40여명이 명절 성수품을 구입, 안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재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있도록 공직자가 솔선수범,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성소방서는 7일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나눔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했다. 박재성 기자



## 영덕대게축제 천년의 맛, 모두의 맛' 즐기자

### 2월 29일부터 4일간 오감만족 축제 풍성



동해안 최고의 겨울 축제 영덕대게축제의 개막이 임박했다.

2024 영덕대게축제는 오는 29일 차유 대게원 조마을(축산면 경정2리) 안전 기원제와 영덕군 9개 읍면 풍물단과 대게 상가가 참여하는 강구대게거리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4

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영덕대게축제 주제는 ‘천년의 맛, 모두의 맛’이다. 축제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영덕대게를 맛보고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영덕대게 맛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격상시켰다.

올해 축제에서 영덕군은 CJ그룹의 계열사인 CJ엔디원(식품머천다이징, 판촉 부문)과 협업을 통해 CJ엔디원 소속 셰프들이 영덕대게를 주제로 참신한 레시피를 개발, 현장 시식회도 연다.

CJ엔디원에서는 내부 시연회에서 선정된 3종 이상의 영덕대게 피자파우드를 축제 기간 내내 매일 600인분 이상 관람객에게 제공하면서 실제 상품화 가능성까지 타진하게 된다.

기존 축제에서 불편함을 겪던 즉석 대게찜 부스는 찜기를 3배 이상 늘려 이용객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 대표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 부스도 그대로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도 더 풍성해졌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영덕대게누시와

대게신고달리기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대폭 늘렸다. 가장 인기 있는 대게누시 체험장은 2배 이상 확장했다.

어린이 누시 체험장도 별도로 운영한다.

2022년 지역 고유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까지 마친 영덕대게줄당기기는 축제 방문객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가 가능해졌다.

영덕대게탈축구는 어린이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니축구 체험 이벤트를 더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새로운 야심작으로, 축제와 영덕 관광지를 같이 체험한 관광객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영덕대게를 들고 촬영한 사진으로 추첨도 남기고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영덕대게 사진 콘테스트도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27회 영덕대게축제 누리집(<https://crab.ydfesta.kr/ko>), 영덕대게축제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festival.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대구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뿌리뽑는다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대구경찰청은 총선을 전후해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경찰은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대구경찰청과 경찰서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한다.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한다.

금품 살포, 폭력 등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에는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히 대응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해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자금을 원천 차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태용 기자



# 경북도 들녘특구... 농촌 들녘에 풍년가 울려 퍼진다

### 경북 역점추진 농업대전환 핵심과제 들녘특구 2년 차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방소멸 극복... 혁신 모델 들녘특구 4곳 80억원 투입

경북농업기술원이 '들녘특구 조성'을 위해 경북의 농업을 개별 영농에서 기업형 농산업을으로 대전환한다.

'들녘특구'는 민선 8기 이철우 경북지사의 농업대전환 핵심과제다.

농기원은 '밀 벨리 특구'는 구미시 도개면, '식량작물 특구'는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천북면, '경축순환 특구'에는 울진군 평해읍을 선정해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들녘특구가 2년 차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경북형 농산업을의 혁신 모델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들녘특구 특화 마을이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해 저출생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방시대 농촌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들녘특구' 4곳에 2년 간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 ■이모작 생산 기반 마련

지난해 들녘특구는 공동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해 농가소득 2배 달성을 위한 이모작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울해는 특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 체험·관광 등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가와 도시 근로자의 소득이 50% 격차가 나고 저출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공간의 재정비와 농산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새로운 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특구-1특화마을 4곳을 조성한다.

특화마을은 들녘특구가 조성된 지역 관광자원과 농촌 힐링 공간 등 마을 특화자원을 발굴, 특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전략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6차산업을 진행한다.

지난 2일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특화마을 운영 사례 파악과 특구별 특색있는 마을 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구미 밀벨리 특구는 지역 관광지 초전지와 특구 빵 베이커리를 연계한 빵이순례 프로그램으로 "지금밀애 빵마을"을 조성한다.

특구에서 직접 재배한 우리밀을 경북에 최초로 도입한 전문 제분시스템에서 고품질의 밀가루로 가공한다.

가공한 밀가루로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품화한 우리밀 특구빵을 맛보고 체험하며 한옥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포항 식량작물 특구는 '청장농 공미마을'을 조성해 초보 청년농업인이 공동영농 현장경험을 익히는 배움과 쉼터를 제공한다.

경주 식량작물 특구 "도근도근 공마을"은 콩 가공·요리를 통한 무한변신으로 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로 만든다.

울진 경축순환 특구는 양질 조사료 순환농업 및 해파랑길 관광작물 농부 관광을 즐기는 "저탄소 누리마을"로 조성된다.

#### ■들녘특구 6차산업 접목 소득 창출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모작 규모화와 기계화 공동영농은 기상환경, 토양조건 등 재배환경에 따라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구별 6차산업 맞춤형 융복합으로 공동영농 단지를 마을과 연계한 농산업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

1특구-1특화마을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해 특구별 마을 모델을 완성한다.

지역별 농업 여건에 적합한 들녘특구 모델을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

들녘특구는 식량작물 이모작과 6차산업을 접목해 소득을 창출한다.

참여하는 농업인의 유형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경북 농업대전환의 주주형 공동영농 특화 모델이다.

농지를 완전히 위탁해 공동체가 관리하는 '농지위탁형', 농지에 대한 주요 농작업 등을 공동체가 대행하는 '영농대행형', 농지와 함께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농지경영형', 그리고 농지 없이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경영참여형'이 있다.

특구별 공동체의 경영에 따라 농지위탁형은 평당 2천 원~3천 원의 소득을 배당받거나, 머지 유형은 생산물 소득과 공동영농 참여도에 따라 배당받는 형식이다.

2013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7.2kg에서 지난해 56.7kg으로 떨어졌으나, 제2 주곡인 밀의 지급률은 1% 수준에 머물러 식량 수급 불균형

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북면 일대 104ha에 콩, 벼와 밀, 조사료 등 이모작 재배 단지를 비롯해 생산기반시설, 가공협장장을 조성한다.

농업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은 농업대전환 공동체 육성, 벼+조사료 2모작 재배기술, 우리밀, 가루쌀 소개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펼쳐진다.

시는 들녘특구 공동체 의식을 농업인에게 함양시켜 우수공동체를 육성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다.

시농업기술센터는 "경북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 ■포항시, 들녘특구 조성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흥부영농조합법인은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욱 흥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들녘특구의 농지 투자라는 획기적인 발상과 기계화된 공동영농이라는 모델은 많은 청년들이 경북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북농업을 바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기혁 기술보급과장은 "들녘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포함농업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흥부영농조합법인이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밀·콩으로의 식량대전환은 생산·농가·수익 창출과 생산·소비자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부자사업"이라고 말했다.

#### ■구미시 밀 벨리 특구

구미시 도개면은 90농가가 120ha에 콩 수확 후 밀과 양파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한다.

이모작을 하면 특구단지 공동영농 소득은 22

억 5100만 원으로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2.5배

높아진다.

1ha당 농가소득은 벼 단작보다 콩과 밀 이모작은 1507만 원으로 2배, 콩과 양파는 3602만 원으로 4.9배 높아진다.

구미시가 밀·콩 이모작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식량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5년간 50억원을 투입하는 식량대전환 사업이다.

시는 23억원을 들여 △165㎡ 규모의 밀 제분 시설 △100ha 면적의 밀·콩 재배단지 △165㎡의 밀 체질장 △20ha의 국립종자원 밀 종자 씨 받아밭 조성 등을 통해 쌀 생산을 밀·콩 이모작 재배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밀 산업 시범 벨리 △ 들녘 특구 시범단지 조성 △논 이모작 시범 생산 △제빵에 적합한 우리 밀·콩 품종(백강, 황금

키계 된다.

울진군은 농촌인구 노령화 극복, 농가소득 증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6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은 △유기농산업을복합서비스지원단지 △유기농 에듀캠 △경축순환 들녘특구 △스마트 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과 △대형저온저장고 및 저온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을 한다.

평해읍 월송들 일대 경축순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은 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트랙터, 파종기, 휴믹복토기, 선별기계 등 생력화 기계장비를 지원,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도작(벼)에서 콩, 밀, 조사료, 양파, 감자 등으로 전환해 소득을 2배 이상 올리고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식량작물 특구' 경주

경주시는 개별 농가 중심의 농업에서 규모화된 공동체 중심의 농산업을으로 전환하고, 농업에 첨단 과학을 접목시켜 기계화단지를 조성하는 들녘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천북면은 136농가가 100ha에 벼와 콩 재배 후 밀과 조사료를 재배한다.

이 곳은 청년농업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사료 영농대행과 경북도 육성 콩 신품종 '두리' 활용 가공 및 농촌 체험으로 청년농업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준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10개 읍면동 현지 순회교육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월 경북도 농업대전환 들녘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25ha에 논공을 재배하는 등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작물 재배에 앞장서고 있다.

논공은 발공 대비 수량이 많고 대규모 기계화 재배가 가능하다.

농가소득증대와 콩 자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원활한 생산과 품질 개선을 위해 파종 및 생육 초기에 병해충 관리, 배수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경북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논공 재배기술 교육과 논공 선도 법인인 상주나누리농업법인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초기재배관리를 지원한다.

흥부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향후 논공 후작으로 보리 등 맥류를 재배해 100ha 이상의 이모

작을 재배했을 때보다 2.5배

높아진다.

1ha당 농가소득은 벼 단작보다 콩과 밀 이모작은 1507만 원으로 2배, 콩과 양파는 3602만 원으로 4.9배 높아진다.

구미시가 밀·콩 이모작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식량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5년간 50억원을 투입하는 식량대전환 사업이다.

시는 23억원을 들여 △165㎡ 규모의 밀 제분 시설 △100ha 면적의 밀·콩 재배단지 △165㎡의 밀 체질장 △20ha의 국립종자원 밀 종자 씨 받아밭 조성 등을 통해 쌀 생산을 밀·콩 이모작 재배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밀 산업 시범 벨리 △ 들녘 특구 시범단지 조성 △논 이모작 시범 생산 △제빵에 적합한 우리 밀·콩 품종(백강, 황금

키계 된다.

울진군은 농촌인구 노령화 극복, 농가소득 증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6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은 △유기농산업을복합서비스지원단지 △유기농 에듀캠 △경축순환 들녘특구 △스마트 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과 △대형저온저장고 및 저온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을 한다.

평해읍 월송들 일대 경축순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은 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트랙터, 파종기, 휴믹복토기, 선별기계 등 생력화 기계장비를 지원,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도작(벼)에서 콩, 밀, 조사료, 양파, 감자 등으로 전환해 소득을 2배 이상 올리고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오그래미 마을, 수해피해 복구 현장.

# 水魔가 활귀고 간 자리 폐하...봉화군 수해 복구 총력

박현국 봉화군수, 지난해 대규모 수해 피해 아픔 잊고 다시 시작 새로운 봉화...모든 행정력 동원

지난해 여름 예전은 게릴라성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농작물과 배, 사과 등 과수를 송두리째 집어 삼켰다.

'물 폭탄'과 함께 수마(水魔)가 활귀고 간 자리에는 갈수록 그 참혹한 상처가 지켜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재민 발생과 산사태,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등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 졸지에 생활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의 모습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폭우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토사에 매몰된 영아부터 실종자 수색 중에 변을 당한 해병대원까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득 찼다.

지난해 7월14일 밤부터 주말 사이 그야말로 물 폭탄이 떨어지며 경북 북부지역은 축대밭이었다.

수마로 예전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4명, 문경에서도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예전군 내성천에서 소방과 경찰, 군인 등 누적 인력 1만9000여 명이 펼친 수색 작업은 개시 68일 만인 9월 2일, 실종자 2명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 참담한 사고도 있었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총 942ha, 피해액은 사유지 624억 원과 공공지 2296억 원에 달했다.

산사태 등으로 집이 파손된 이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8월 말 예전군 벌방리에 처음 설치됐고, 이후 총 48동의 조립 주택과 임대 주택에 이재민들이 입주했다.

산립 피해도 컸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지역은 142ha,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 □ 폭우...봉화군 재기 삼길

폭우는 멈췄지만 여전히 재기의 삼길에 비치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

해가 컸던 봉화군이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해 대규모 수해 피해의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항구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복구를 주민들이 안심하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군은 응급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속히 추경성립예산 40억 원을 편성했다.

10개 읍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대를 교부

했다.

하천 제방 붕괴 복구, 마을진입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응급 복구, 사면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함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역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자발적 수해 복구 참여를 이끌어냈다.

수해 발생 이후 약 한 달여간 각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일 현장을 방문했다.

응급 복구현장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과 모범을 보였다.

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4614세대에 135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원칙으

로 지급 완료,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주택 전과, 반과 등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10가구 21명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생활보급자리를 조속히 마련했다.

임시주택은 이재민들이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거주 주변에 설치, 최장 2년 동안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가전제품도 지원했다.

TV 요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삶의 터전을 새로이 일궈 안정적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 □ 폭우피해 국비 1566억 확보

박현국 봉화군수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참석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만 땀집식으로 원상 복구할 경우 지금과 같은 폭우 시에는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 복구계획에 군에서 요구한 개선복구사업 112억 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124개소 947억 원이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또한 490억 원에 달한다.

군은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 예방을 위한 전면적 개선복구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호우에 유실됐던 하천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및 교량 재가설, 사면피해 복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구성, 인력자원을 총동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구금액이 10억 이상인 7곳을(지구단위 2곳, 도로시설 2곳, 하천 1곳, 산립 2곳)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주요 복구 공사에 대해 신속한 발주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 교부 전에 군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 지난해 12월 중 완료했다.

재해 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원 미만 현장은 4월, 50억 원 미만 사업은 6월까지, 50억 원 이상 현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구조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전면 개선복구를 추진한다.

봉성면 오그래미 지구(수로개선 1km, 마을안길 0.4km), 소천면 살래천 지구(도로 1.6km, 하천 0.8km)는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

경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봉성면 창평천, 준양면 운곡천, 상운면 구천과 토일천 지역에도 750여억 원을 투입, 경상북도에서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하천 복구 공사를 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수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관계기관 모두가 한 마음, 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김학동, 예천 경북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飛上

## 탄소 중립 선도 도시 클린예천 건설 총동원 도시농촌 복합형고장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비상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게 바로 새로운 변화, 경북의 핵심도시다. 예천군은 소백 준령으로 둘러싸여 있고, 낙동강과 내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으로 물 맑고 인심 좋은 선비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이다. 때문에 김 군수는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예천은 경북의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고장으로 도도하게 뚫 올린다"고 자신했다.

###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

김 군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클린예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클린 예천을 위해 환경정책 분야에 2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을 수립한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토대를 마련, 군민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따른 무공해 전기차 보급 사업에 338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한다.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자동차 흡착 필터 등 저공해화 사업에 830여 대 22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추진 중인 예누리길에 소규모 물길쉼터를 만든다. 미세먼지 신호등과 스마트에어 샤워기를 설치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건강을 챙긴다. 주거환경 개선에 19억 원을 들여 480여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 방치된 슬레이트도 안전하게 처리한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쓴다.

청정 예천의 자랑 물 맑은 하천을 조성한다. 하천수 수질모니터링과 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폐수처리에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예천 수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해요! 클린예천 범 군민운동도 지속 추진한다. 폐아이스팩 및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클린예천 보물마차, 빈병무인 회수기 사업을 지속 운영, 캠페인 무인 회수 로봇을 추가 설치한다. 25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대형폐기물 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대행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폐기물 수거 전문성을 제고한다. 올해 클린상가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상가 앞 자율청소를 유도한다. 클린예천 영농환경심사제도 도입한다. 농경지 인근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청정예천 이미지를 이어간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2050 탄소중립으로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앞으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클린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새해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현대양궁월드컵 성공 개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와 의료법인 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은 지난 2일 예천군청 군수실에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식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천권병원은 대회가 열리는 5월 21~26일까지 6일간 조직위원회와 응급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회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데 60여개국 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 설맞이인사

#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김학동 예천군수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예천군수 김학동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예천군 행정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의 중심도시 예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현장들은 복구전담팀과 함께 내년 상반기 안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에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 폐밀파크를 완전 개장, 미세먼지 차단 숲과 함께 신도시의 새로운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예천한우특화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와 양궁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예누리길 맨발걷기공원과 남산공원명소화사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사업들은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지정 추진으로 교육 명품도시가 되도록 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제3농공단지 건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으로 농업혁신의 기틀을 잡아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예천군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읍 승격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작은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늘 함께”

### 최병욱 예천군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의장 최병욱입니다. 다시다녔던 2023년을 뒤로 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잘 견뎌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언제나 희망과 기회를 찾았고, 제9대 예천군의회는 위기 극복과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



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천군의회는 참된 지방자치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늘 함께 하며 그 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4월간의 설 연휴 동안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 친지, 오랜 벗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즐겁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선수 대회 관계자, 관람객 등 대회 관련 응급 후송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처치 △대회 의료 지원센터 운영 및 의료자문 △기타 대회 운영 의료 지원 등이다. 군은 대회 기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였던 예천권병원이 양궁월드컵대회의 공식 지정병원으로서 적극 협조해주신다고 하니 든든하다.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권규호 예천권병원장도 "군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공식 지정병원으로 참여, 지역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는 세계양궁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양궁협회와 예천군 조직위가 주관하는 국제양궁대회다.

### 예천군,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른 청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집중한다. 군은 지난 6일 단샘어울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청년단체 관계자 및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전재익 기획예산실장과 예천군 관내 15개 청년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역 내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민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의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지역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진솔한 고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었다. 군에서도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천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해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청년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총 4개 분야 10개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만들기에 집중한다.

### 설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

2월 1일부터 약 1주일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장보기 행사 기간 김학동 예천군수와 예천군 공직자, 출연기관 직원, 자생 단체 회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쌀, 과일류, 육류 등 명절 성수품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했다. 김 군수는 "장보기 행사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는 기회가 돼 기쁘다.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군민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설 명절 맞이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 명절 기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지난 6일 만·관 협동으로 예천읍 상설시장 등에서 예천군 안전모니터 봉사단,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함께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계몽운동도 열었다. 자율 안전 점검 실천 운동 활성화로 가정용 안전 점검표를 배부, 화재 예방 수칙 및 식중독 국민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재난 안전 네트워크 회원과 간담회를 열어 매일 진행되는 '안전 점검의 날' 활성화 방안과 군과 재난 안전 네트워크 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재국 안전재난과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예천재난네트워크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군민들도 안전한 명절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안병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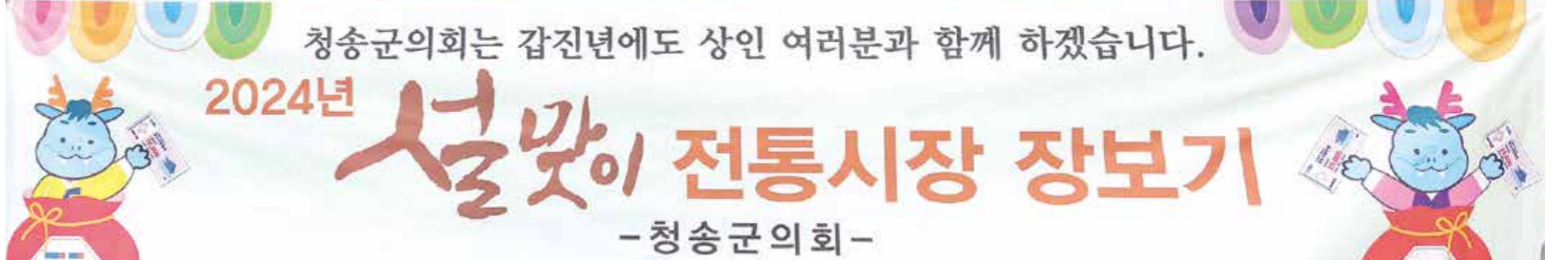
# '설' 마음은 벌써 고향... 따뜻한 설명절 보내자

청송군, 8282 민원처리 기동반운영  
빈틈없는 군민 생활편의 대책 마련

설이 코앞이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다.  
매년 맞이하는 설이지만 매년 새롭고 기  
다러지는건 그리운 고향이다.  
언제 가봐도 정겹고 실증나지 않는게 고  
향산천이다.  
말은하지않지만 진심으로 반겨주는 고향  
땅이다.  
그래서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라  
했다.  
일선 지자체마다 설명절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이웃돕  
기도 한창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으로 운동도 벌  
인다.

**■경북도 설맞이 행정역량 투입**  
경북도는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4대 분  
야(민생, 안전, 나눔, 관광) 13개 세부과제  
를 추진한다.  
도는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과 민생활력  
제고에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한다.  
2월8일까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  
영한다.  
성수품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서고, 설맞  
이 온·오프라인 특별판매전을 통한 대대  
적인 할인 지원 행사로 장바구니 물가 부  
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성수 식품 합동점검, 원산지 표시 단속으  
로 안심 먹거리 제공과 위생관리도 철저하  
한다.  
전통시장은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전통시  
장 상인회 중심의 심야 야간순찰대를 운  
영한다.  
설 연휴 귀성객과 도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와 맞춤형 관광 지원에도 나선다.  
도내 지역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체험  
등 특별 문화행사를 연다.  
경북 나드리 관광 행사로 설연휴 가볼 만  
한 곳, 축제, 행사정보 등을 제공해 관광 활  
성화를 꾀한다.

**■청송군, 설명절 종합대책**  
청송군도 마찬가지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명절 종합대책'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했다.  
윤 군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군민들이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으로 군민과 귀성객  
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  
객들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종합 대책을 마련  
했다.  
설 연휴기간 9~12일까지 분야별 상황관  
리를 위해 8개반 110명의 인원을 편성,  
각종 비상·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한다.  
설 종합대책은 △안전하고 든든한 명절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명절 △편안하고  
안락한 명절,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4대  
대책 10대 중점과제로 수립됐다.  
설 연휴기간에는 '8282 민원처리 기동  
반'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군민 생활편의  
대책을 마련, 많은 귀성·관광객이 전국적  
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 특별교통대책 상  
황실을 운영한다.  
대설·한파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체계  
를 구축한다.  
취약시설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재  
난재해 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청송군의회, 장보기 행사**  
청송군의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8일  
(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격려



를 위해 읍·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행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  
해 마련다.  
지난 5일 의원들은 청송재래시장에서 다  
양한 상점을 둘러보고 청송사랑화폐를 사  
용,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품을 구입, 상인  
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권태준 청송군 의회의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통  
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 문화누리카드 지원**  
청송군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  
권) 사업으로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활동  
을 지원한다. 카드로 올해 청송군은 주민  
1928명에게 총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1인당 연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2만원 증액된 1  
인당 13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다  
양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쉽게 발급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면 전국 어디  
서든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윤 군수는 "이번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  
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촘촘  
한 문화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  
했다.  
**■설맞이주거환경개선**  
청송군새마을회는 최근 주택 화재로 피  
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화재는 지난 1월 31일 파천면에서 발생,  
해당 가구는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설을 앞두고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마  
음의 빈집을 연계해 줬다.  
빈집은 몇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송군새마을회에서 20여명의 자원봉사  
자들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청송군새마을회는 빈집을 청소하고, 도

배와 장판 교체 및 전기·보일러 수리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가구가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다.  
파천면새마을회에서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한 피해 가  
구의 세대주는 "도움을 준 청송군과 새마  
을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과 봉사단체  
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다함께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따  
뜻한 청송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웃돕기성금 전달**  
백석탄골부리권역활성화센터는 지난 5  
일 안덕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청송군에 전달했다.  
백석탄골부리권역활성화센터는 마을공  
동체의 활성화와 지역특색을 유지하기 위  
해 골부리를 주제로 하는 활성화센터와 체  
험장과 캠핑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  
성, 운영하고 있다.  
김정학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나눔의  
마음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여  
주신 백석탄골부리권역활성화센터에 감

사드립니다. 보내준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송군재향군인회도 (재)청송군인재  
육성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  
탁했다.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 기념  
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는 김세중  
회장은 "미래의 희망이며 조국수호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은 보탬  
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고 전했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  
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사회의 모범단체  
로서 장학금 기탁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  
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뜻을 이어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1954년 창립된 청송군재향군인회는 회  
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  
개,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청송군 자율방범연합회도 이웃돕기 성  
금 200만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청송군 자율방범연합회는 매년 야간순  
찰,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물품과 성금전  
달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성학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윤병문 기자



# 설 선물 뭐가 좋을까.. 영양 고추가 “딱이야~”

현대인 ‘입맛’ 사로 잡고 소비자 선호도 제일높은 명품고추 바로 영양고추

영양은 고추의 고장이다. 고추의 주산지다. 하늘에서 보면 푸른 녹음으로 가득한 산과 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고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영양군 농촌산업의 전반이 되는 고추 농사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래 농촌산업을 위해 고추 농사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고추 명성 100년 이어간다**  
영양이 흥고추 주산지로 발달음한다. 전체 세대의 절반인 440세대(48.3%)가 농업에 종사, 대다수가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경북지방 중에서도 고도가 높은 영양군은 겨울을 감싸고 있는 높은 산세로 인근 시군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무상기간이 비교적 길어 고추 농사를 짓기에 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평균 3000톤 이상의 견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규격화된 우량 고추 묘를 보급 받아 고추의 품질은 보장되고 육묘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영양군은 현재 고추 농사에 따른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달 고추 농사 대전환을 위한 설문지가 1936 대상 농가에 배포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추농업의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화, 제도개선 등이다.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영양고추 최고가격 보장제도 농촌 경제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홍고추 최고가격 보장제는 202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홍고추 계약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전국 최고가격 수매 실시로 농업경영 안정과 영양 고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영양군은 농산물 도매시장 홍고추 가격을 반영, 주 1회 또는 가격 급등락 시 수시 조정하여 시장 가격 이상으로 홍고추를 수매한다. 농가의 수매율 60%이상 농가에 200원/kg에서 300원/kg으로 출하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매율 50% 이상 농가에는 유기질 비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비자 선호도 높은 영양고추**  
영양군은 지금 고추 파종이 한창이다. 파종이 끝난 뒤, 이른 봄 서리를 피하고 늦서리가 가면 길게 늘어놓은 검은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 충분히 관수한 후에 모종을 심는다. 병충해를 이겨내기 위해 고추심기 후 보름에서 20일 사이 옷거름을 주어 영양분을 시기적절하게 흡수하도록 해주며, 땅이 말라 건조하지 않게 물을 주어가며 키워야 한다. 관수시설이 발달한 요즘은 물에 비료를 섞어 치기도 한다. 이 뿐 아니다.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6월부터는 관리에 집중, 수확하기까지 많은 정성을 쏟아낸다. 식탁으로 올라가기 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품의 가치와 품질의 보증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미국 FDA 인증, GAP 지정, HACCP 등 엄격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고추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맛과 용량의 ‘빛깔찬’ 고춧가루와 ‘빛깔찬’고추장을 만날 수 있다. 고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영양고추의 명성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맛있게 매운맛이 있기 때문이다.

매우면서도 당도가 높아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는 적게 사용해도 진한 맛을 낼 수 있어 음식을 만드는데 쓰임새가 다양하다.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품고추, 바로 영양고추이다. **영양고추 수출 100만불 금지탑** 영양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큰 힘이 된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집약적 농업구조인 고추농사의 특성상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번기 인건비 상승 억제 한몫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MOU 체결로 지난해 3차 659명이 입국했다. 고추 수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건비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농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영양군은 협약 체결을 확대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확보 등으로 도입의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936명의 인원이 302 농가에 일

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입국한다. 빛깔찬 일자리 지원센터와 농작업 대행반의 운영을 확대한다. 향후 농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으로 일손 걱정 없는 농업환경에 힘쓴다. 농가는 농사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과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삼표가 목표다. 영양군은 해외 마케팅 판로개척은 2016년 시작, 명품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의 ‘빛깔찬 고춧가루’가 지난해 햇고추 가루 13톤을 미국에 수출했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향후 수출 100만불 금지탑을 달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양군 수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영양고추의 특성과 우수성** 맛과 향이 뛰어난 영양고추는, 색깔이 곱고 선명하다. 고춧가루는 물에 뜨며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여도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중대과중으로 과실표면이 매끈하다. 고춧가루가 많고 색깔이 좋으며 고추씨가 적다.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높다. 과형이 좋고 과피가 두꺼우며 평균 초기 수량이 높다. 일조시간이 많고 일교차가 크다. 고추재

배 적지의 토양(식양토)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추재배 전문가이다. 품종선택, 재배관리요령, 건조기술이 타지역보다 앞선다. 전국에서 특허비중이 가장 높고, 수비초등 영양재래 특수품종을 재배한다. 영양고추는 고랭지에서 재배되어 당질 함량이 많고 비타민A, 비타민C 함량이 많은 뿐만 아니라 과일이 크고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난다. 풋고추, 홍고추는 과일이 크며, 섬유질이 적고 단맛이 많아 식미가 좋다. 특히 관능감사에서 수비초는 김장김치에서 다른 고추보다 맛과 색깔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양군은 경북 동북부 낙동정맥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며 인근에 안동시, 청송, 영덕, 봉화, 울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낙동정맥이 남쪽으로 뻗어 크고 작은 산과 강을 이루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의 반변천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부락이 형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15행정리, 485반, 275자연부락이다. 총면적 815.08㎢로써 경북의 4.2%를 차지한다. 가구수는 9127호 (농가 2,586호, 28%)이다. 인구는 1만6884명 (농업인구 5,217, 31%)이다. 경지면적은 1만1072ha (논 1,037ha, 밭 10,035ha)이다. 영양군의 기후는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 여름작물의 결실을 좋게 하며 여름철의 기후가 서늘한 중간산지, 산간지로서 고추생육에 최적이다. 고추생육적온은 주간 25 ~ 30℃, 야간 15 ~ 20℃이다. 군은 인근군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무상기간이 비교적 길어 고추재배 적지로 평가된다. 고추개화 결실기에 주야 온도교차가 11.3℃로 크고 일조시간이 길며, 강우량도 적당해 재배지 여건으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지역과 대비, 일조시간이 길고 일교차가 커서 기상여건이 좋다. 영양군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편마암과 수성암계에 속하는 것으로 경기변성암 복합체로 구성돼 있다. 고추재배지의 경토는 식양토가 대부분으로 우량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양군은 영양고추 품질개선에 한창이다. 품질개선은 △고품질 영양고추 생산을 위해 양질의 유기질 퇴비 지원 △맛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육성을 위해 수비초, 칠성초 등 재래종 복원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해 플러그 육묘, 점목묘 육묘 △정결하고 위생적인 견고추 생산을 위해 완숙고추수확, 세척, 건조 △고추 재배 농가에 우수한 품종의 종자 공급, 계약 재배이다.



# 김하수, 청도 행복헌장 제정... 청도를 바꾼다



## 청도군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덕목 청도행복헌장 제정

### 제정 배경

청도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는 행복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군민의 행복 증진 및 선진도시 함양으로 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추진 방향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인이 청도군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헌장을 제정했다. 행복헌장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군민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의 덕목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단순히 행복헌장 제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활성화할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의식의 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구한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내년 3월부터 30명 정원의 4년제 과정으로 정식 운영한다. 청도군민만 지원할 수 있고 청도군이 매 학기 50만 원, 대학이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 청도발전을 위해 일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바탕 위에 '평생학습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꿈의 열차 타고 풍요 넘치는 부흥의 땅 청도건설 총 매진 화랑·새마을정신 발상지청도 행복헌장 실천 쾌적환경조성 노자·도덕경 말처럼 선한마음 선한활동 긍정기운 가득하길

한 활동으로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도를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김 군수가 말하는 공직사회는 군정의 주인인 군민을 잘 섬겨야 하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책무다. 공무원의 편의보다 군민의 편의가 먼저인게 이유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으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기 부여로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도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친환경 미래 농업 육성으로 부자가 많은 살기좋은 청도를 만든다. 현재 청도를 중심으로 영남권에 1300만명이 살고 있다.

그 중심이 청도다.

김 군수는 청도에 최고의 워라밸과 레포츠 단지를 조성, 관광중심도시를 건설한다. 무엇보다 군민행복과 청도발전 두 배를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도시를 만드는 데 전력 질주 한다.

김 군수는 다함께 누리는 따뜻한 선진 복지를 실현에 앞장선다. 군민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도록 더 넓고 더 두터운 군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이다.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은 매일 매일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범국가적 화두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소멸시대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든다.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기반시설의 안정화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청도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

지역발전 인프라를 구축, 지역 자생력을 높이고 상생 협력의 신성장 혁신경제를 구현한다. 소통과 변화를 꾀하는데 안감힘을 쓴다.

섬김의 군정 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모습과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김 군수가 내건 4만2000여명의 청도군민과의 약속이다.

조여은 기자

김하수 청도군수가 2024 갑진년 힘차게 뛰다. 김 군수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는 꿈의 열차를 타고 풍요가 넘치는 '부흥의 땅' 청도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김 군수는 청도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만큼 의욕 넘치고 자신감 차 있는 군수다.

### □청도 행복헌장 제정

그래서 인지 김 군수는 청룡의 해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 그것이 바로 청도 행복헌장 제정이다.

김 군수는 청도군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발전을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청도 행복헌장을 제정했다.

청도 행복헌장은 김하수 청도군수를 중심으로 군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안을 받아 투표로 제정됐다.

행복헌장 내용은 △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 자신의 시간을 갖고 명상을 생활화하기 △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 △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 활동 하기 △ 운동·취미를 한 가지 이상 가지기 △ 삶의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 △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하기 △ 일과 삶에 대한 조화를 이루기 △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짜여졌다.

선정된 청도 행복헌장은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군 소식지, 누리집에 홍보한다.

김 군수는 "군민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청도 행복헌장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랑·새마을 정신의 발상지인 청도군에서 행복헌장을 실천, 노자 도덕경의 말처럼 선한 마음과, 선

## 청도 행복헌장

-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 자신의 시간을 갖고 명상을 생활화하기
-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
-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 활동 하기
- 운동·취미를 한 가지 이상 가지기
- 삶의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
-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하기
- 일과 삶에 대한 조화를 이루기
-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